

시정권고사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심의하여 그 시정을 해당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례를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로 구분하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의 보도 내용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설명 및 주소 등이 보도되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정합니다.

<시정권고 2008자심1>

2008. 1. 21.

- 경남일보 2007년 12월 12일자 6면 『무허가 낚시선 음주운항 적발』

보도내용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상태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 중 다른 낚시어선 선원을 흥기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통영선적 2.82t급 유자망 어선 선장 이모(52·○○면○○리) 씨를 음주운항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밝히면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특징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

<시정권고 2008자심2>

- 서울신문 2008년 1월 7일자 9면 『은행들 범죄 타깃 자초』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현금인출기에 이물질 등을 끼워넣어 기기오류가 발생하도록 한 뒤, 관리센터의 지령을 받고 보안업체 직원 이모(26) 씨가 출동하자 흥기로 이씨의 오른 다리를 찌른 뒤 청테이프를 묶고 30분만에 현금인출기에 있던 돈 통 3개를 통째로 가져갔다. 이들은 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한 뒤 CC(폐쇄회로)TV와 하드디스크(저장장치)의 연결선을 뽑고 하드디스크에 물을 부었다. CCTV 기록 복구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들이 하드디스크 본체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물을 부었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낮아 이르면 7일쯤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은행 강도 사건 관련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 21.

〈시정권고 2008자심3~4〉

- 아시아투데이 2008년 1월 30일자 27면 『지하철역서 격투 끝에 강도 잡은 시민 '포상'』
- 연합뉴스 2008년 1월 29일자 사회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격투 끝에 강도 잡아』

보도내용

「... 화제의 주인공들은 유○○(31·영화배우), 김○○(29·매니저), 박○○(25·대학3년)씨. 29일 경찰에 따르면 설모(25)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충신대역 안에서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방모(24)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현금 수천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 중략 ... 마침 집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유○○씨와 동료인 김○○씨는 한 남자가 두툼한 가방을 가지고 급히 도망치는 것을 보고 뒤쫓기 시작했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박○○씨 역시 승강장 반대편에서 '강도야'라는 시민의 절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고 곧이어 설씨가 두툼한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자신쪽으로 달려오자 무의식적으로 설씨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특정강력범죄)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5〉

- 전북중앙신문 2007년 1월 17일자 15면 『만취 경찰관 노래방 불 질러』

보도내용

「현직 경찰관이 애인 관계인 노래방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노래방에 불을 질러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16일 새벽 2시 30분께 군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한모 경사(41)가 전주시 ○○구 ○○동 지하 1층 최모씨(여·43) 노래방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러 한 경사와 업주인 최씨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6〉

- 데일리경인 2008년 1월 14일자 사회면 『고소장 원본』

보도내용

『고소장 원본』 제하의 기사에 실린 고소인과 피고 소인의 개인 정보

이 유

위 기사는 비록 해당 형사사건의 내용이 공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고소장 원본을 그대로 적시하여 고소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및 피고소인들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7~8>

- 서울일보 2008년 1월 24일자 19면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
- 충남시사신문 2008년 1월 29일자 23면 『여관에서 필로폰 투약자 검거』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 천안경륜장에서 50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김사장으로부터 필로폰 〇〇〇g을 〇〇만원에 구입한 뒤, 여관에 투숙해 〇〇〇g을 〇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〇회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필로폰(마약류)의 구입가격, 1회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9~12>

- 고뉴스 2008년 1월 28일자 사회면 『동성애자 성적 흥분 마약 ‘고메오’ 유통 사범 검거』
- 일요시사 2008년 1월 20일자 18~19면 『철없는 20대, ‘성폭행 피해여성이 전리품?’』
- 일요서울 2008년 1월 20일자 31면 『“있는 집 자식이 더해” 타락한 강남 보이즈』
- 헤럴드경제 2008년 1월 25일자 10면 『신종마약에 ‘몽롱한 한국’』

보도내용

「...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조직 범죄수사부(부장 검사 김학석)는 수원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신종환각마약인 〇-〇〇〇-〇〇〇〇, 일명 〇〇〇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구매해 투약한 마약사범 총 68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략 ... 구속된 김모 씨는 2007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KTX 특송화물을 이용해 정모 씨로부터 15만원을 받고 〇〇〇캡슐 6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7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한편 〇〇〇는 숫자 5를 일본어 발음으로 고라고 표시함으로써 알려졌고, 유럽지역에서는 〇〇라는 파티용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다. ... 중략 ... 〇〇〇가 동성애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항문 성관계시 고통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적흥분을 느끼게 해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〇-〇〇〇-〇〇〇〇)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

므로 (시정권고심의회 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3〉

• 국제신문 2008년 1월 30일자 8면 『위조된 바코드 범죄 이용 속수무책』

보도내용

「대구에 사는 김모(42)·이모(여·38) 씨 부부는 전국 대형할인마트를 돌아다니면서 3만 원대인 분유에 1만 원짜리 위조 바코드를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분유를 빼돌려 오다 29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중략 …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의 범행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바코드 생성기를 구입, 자신들이 직접 집에서 바코드를 위조한 뒤 이를 대형할인마트에 있는 상품에 몰래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한 것이다. … 중략 … 바코드 위조는 사기 범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악용되고 있다. 바코드 위조의 가장 흔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나돌고 있는 바코드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바코드 복사만으로 변조가 가능한 대학 학생증 위조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바코드 학생증으로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 바코드를 종이에 복사해 다른 카드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학생증이 대학가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바코드 위조'라는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회 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4, 31〉

- 연합뉴스 2008년 1월 31일자 사회면 『'심지박기', '커튼치기'… 밀수는 진화한다』
- 스포츠칸 2008년 2월 1일자 21면 『밀수 수법이 가막혀!』

보도내용

「… '심지박기'는 합판이나 대리석 등을 여러 장 쌓은 뒤 속을 파내고 밀수품을 숨기는 수법.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에 사용되지만 마약 처럼 부피가 작은 물품은 책이나 작은 상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심지박기'는 대표적인 밀수수법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 컨테이너용 X-RAY검사기가 도입되면서 점차 시도횟수가 줄고 있다. 화물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밀도차를 이용해 밀수여부를 검사하는 X-RAY에 거의 100% 적발되기 때문이다. '커튼치기' 역시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에 주로 이용된다. 컨테이너의 뒷 부분에 밀수품을 싣고 앞 부분에는 마치 커튼을 치듯이 수입신고한 화물을 쌓아 밀수품을 가리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주로 PVC파이프 등이 '커튼'으로 사용됐으나 X-RAY검사기가 도입된 뒤 밀수품과 유사한 재질의 화물이 '커튼'으로 사용되고 있다. '짜퉁' 명품의류를 밀수할 경우 중국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의류를 '커튼'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품명위장'은 화물 자체를 다른 품목으로 속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마른고추와 냉동고추처럼 X-RAY 검사로는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마른고추의 관세율은 270%지만 냉동고추는 27%에 불과해 '품명위장'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밀수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

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5>

• 내외일보 2008년 1월 21일자 7면 『태안 어민 잇단 자살 민심은 ‘폭풍전야’』

보도내용

『태안 어민 잇단 자살 민심은 ‘폭풍전야’』 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이 유

위 보도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참혹한 모습은 비록 그 대상이 공적관심사와 관계된 분신자(焚身者)라 할지라도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6>

• 시사포커스 2008년 1월 21일자 사회면 『강남에 부활한 훌딱쇼 실제 쫓아가보니...』

보도내용

『강남에 부활한 훌딱쇼 실제 쫓아가보니...』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이 유

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이는 위 보도 사진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7~24>

- 기호일보 2008년 2월 22일자 18면 『마약사범 ‘덤터기’』
- 경기매일 2008년 2월 22일자 19면 『마약범죄 누명씩은 일당 검거』
- 경기신문 2008년 2월 22일자 6면 『“운영권 안 준다” 마약 누명 씌워』
- 경향신문 2008년 2월 22일자 12면 『“공원 운영권 안 준다” 앙심 몰래 마약 타 먹인 뒤 신고』
- 인천신문 2008년 2월 22일자 4면 『사업 갈등 ‘마약범’ 누명 씌워』
- 뉴시스 2008년 2월 21일자 사회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뒤집어씌운 일당 구속기소』
- 연합뉴스 2008년 2월 21일자 사회면 『“마약을 먹어라” 사주한 2명 구속』
- 노컷뉴스 2008년 2월 21일자 사회면 『필로폰 먹고 마약사범 누명 씌우다 탈미』

보도내용

「...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는 전 ○○공원 대표이사인 김모(56) 씨와 전 공동운영자의 형인 다른 김모(61)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지시를 따라 범행을 실행한 조직폭력배 배모(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있던 前 근무처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25~28〉

- 인천일보 2008년 2월 20일자 19면 『침몰선박 ○호 선장 구속』
- 뉴시스 2008년 2월 19일자 사회면 『인천 ○○○호 침몰사고 선장 구속』
- 연합뉴스 2008년 2월 19일자 사회면 『인천해경 ‘침몰사고’ ○호 선장 구속』
- 노컷뉴스 2008년 2월 19일자 사회면 『인천해경, ‘침몰’ ○호 선장 구속』

보도내용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안전운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로 ○○해운 소속 ○○○호 선장 윤모(65) 씨를 구속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해 있는 해운 회사의 명칭과 운항했던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29〉

- 국제신문 2008년 2월 2일자 6면 『미궁에 빠진 곰창집 살인사건 인근 주민 제보로 용의자 검거』

보도내용

「...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식당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43) 씨를 구속했다. ... 중략 ...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음식점 주인의 결정적 제보로 실마리가 풀렸다. 그는 “최근 가게에 찾아와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갔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곧 음식점 주인이 지목한 사람의 추적에 나섰다. …」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강도살인)의 피의자가 자신을 지목한 제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0〉

- 한라일보 2008년 2월 4일자 4면 『전투경찰 음독 시도』

보도내용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제주○○경찰서 ○○○대 소속 이모 상경(22)이 자택에서 농약을 마시고 음독을 시도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과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2>

• 제주타임스 2008년 2월 1일자 4면 『마약 매매 알선 등 2명에 실형』

보도내용

「... 장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1일 부산시내 승용차 안에서 김모 씨에게 필로폰 〇〇g 상당을 〇〇만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 중략 ...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모텔에서 필로폰 〇〇g 상당을 〇회용 주사기에 넣고 〇〇로 희석한 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필로폰(마약류)의 구입가격, 1회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3, 34>

• 주간현대 2008년 2월 3일자 제548호 44~45면

『“오늘밤에도 당신 노린다”』

• 주간현대 2008년 2월 17일자 제549호 28~29면
『신종마약 무섭게 확산... 대한민국은 ‘몽롱’』

보도내용

「... 대표적인 마약 필로폰이나 강한 성분의 성홍분제 등을 상대의 술이나 커피에 몰래 타는 이른바 ‘풍당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지난 1월 7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마약류인 ‘〇〇(〇〇〇)’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유층 자제들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 중략 ...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신종마약 〇〇〇는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무색무취로 〇〇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그 효과가 견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정신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물뽕이 데이트 강간약물로 악명이 높은 이유는 24시간 내에 체내에서 빠져나가 증거 찾기가 힘들고 가해자를 찾는 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잃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〇〇〇)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용한 실제 범죄 사례까지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5>

• 시대일보 2008년 3월 24일자 19면 『살인미수 인

도네시아인 용의자 검거』

보도내용

「... 인도네시아 ○○출신인 ○○○ ○○○○(29세 남)은 구미 모 화섬산업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3년 8월 5일 도주불법체류하여 경산시 ○○읍 모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3월 16일 밤 8시 25분 경 경산시 ○○읍 ○○리 ○○○○ 매장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에 동료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위해 마음을 먹고 귀가하던 피해자 같은 인도네시아 ○○○ 출신인 ○○(25세 남)을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도주, 피해자는 중태를 입고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 국가명 과 출신지를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을 추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유형과 소재지를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36>

• 제주타임스 2008년 3월 15일자 4면 『필로폰 매매·투약 2명 구속』

보도내용

「... 강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길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g을 ○○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같은 달 10일 오후 8시께 제주 시내 모 전화방에서 매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

g을 ○○에 희석해 투약하는 등 2차례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37~41>

- 국민일보 2008년 3월 28일자 10면 『과천 정부청사서 전경 투신자살』
- 수도권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4면 『과천, 전경 정부청사서 투신자살』
- 연합뉴스 2008년 3월 27일자 사회면 『전경, 과천 정부청사서 투신 자살』
- 쿠키뉴스 2008년 3월 27일자 사회면 『과천 정부청사서 전경 투신자살』
- 뉴스한국 2008년 3월 27일자 사회면 『과천정부청사 옥상서 갓 자대 배치 받은 전경 투신자살』

보도내용

「전경이 정부과천청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7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던 ○○○ 전경대 소속 김모(21) ○경이 정부청사 5동 건물 7층 옥상에서 투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존 시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

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2, 43〉

- 나주21 2008년 3월 12일자 사회면 『○○농협 김모 씨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 예스TV 2008년 3월 12일자 사회면 『○○농협 김모 씨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보도내용

「○○ ○○농협에 근무하던 김모(30) 씨가 재고량 부족 등의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존 시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4~46, 71, 145~146〉

- 광주매일신문 2008년 3월 27일자 7면 『‘약물로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남편·내연녀 검거』
- 무등일보 2008년 3월 27일자 8면 『대학병원 간호사 약물 살인』
- 전남일보 2008년 3월 27일자 8면 『간호사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
- 노컷뉴스 2008년 4월 5일자 사회면 『보험금 타내려고 내연녀와 짜고 아내에게 약물 먹여』
- 뉴시스 2008년 8월 13일자 사회면 『간호사와 짜

고 아내 약물살해 ‘엽기 남편’ 무기징역』

- 경제풍월 2008년 8월호 87면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

보도내용

「... 조씨 등은 지난달 16일 밤 7시께 남구 지식동 포충사 인근 조씨 승용차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아내 박모(36) 씨의 손등 정맥에 주사기로 ○○○○ ○○cc를 주입시켜 심정지로 사망케 한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7〉

- 일간스포츠 2008년 3월 31일자 19면 『권태 해방구? 위험한 대리전!』

보도내용

「...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갱년기 비슷하게 싫증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와이프 바꿔서 했는데 와이프는 하고 나서 아주 좋았대요. 애무도 잘해주고...”(37세·가명 박정수) ... 중략 ... “바람 안피우고 노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남자는 항상 뭔가 새로운 놀이를 찾는 심리가 있는데 몰래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게 맞다 이거죠.” 결국 몰래 외도를 하느니 차라리 보는 데서 하고, 합법적으로 하자는 간단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 ... 중략 ... 부부들이 일단 스와핑에 빠져들면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속성상 변태 가학적 성

행위(SM)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내의 나체를 인터넷에 노출시키거나 폭력적인 성관계로 치달는다. ... 중략 ... 스와핑이 일반화하면서 요즘에는 스와핑으로 불임치료를 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 중략 ... 그는 “여자분이 저하고 섹스하는 모습을 보고 무정자증 남편이 관전하면서 오르가슴을 느껴요. 미국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라고 밝혔다. ...」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 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여 보도하는 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8, 49>

- 일요서울 2008년 2월 24일자 제721호 28~29면 『신종 변태 업소 페티쉬 클럽 등장』
- 데일리선 2008년 2월 20일자 세태면 『신종 변태 업소 페티쉬 클럽 등장』

보도내용

「... 그 뒤 고객취향에 맞게 엿보기, 냄새 맡기, 발로 자위해주기 등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도우미아가씨가 손에 로션을 바른 뒤 엉덩이와 항문을 애무해주고 손으로 자위를 해준다. ... 중략 ... 페티쉬 매니아들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는 '뷰 서비스'다. 이것은 엿보기를 응용한 것이다. 시각적으로 여성이 남성손님이 원하는 자세나 행위를 취하면 고객이 이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또 냄새 맡기는 '스멜'이라 불린다. 여성의 발 냄새를 남성이 맡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뜻한다.

이밖에 발로 자위해주기는 '풋잡'이라 불린다. 남성 성기를 여성이 발로 비벼주면서 자위를 해주는 행위를 나타낸다. ... 중략 ... 그는 또 “어떤 손님은 제 엉덩이를 자신의 얼굴 위에 올려두고 비벼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손님은 거칠게 팬티 스타킹을 찢으며 자기를 짓밟아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며 “일반상식이 아닌 좀 가학적이고 특이한 성적 특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 중략 ... “처음에는 여느 업소처럼 손으로만 애무하더니 점점 입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발전했다. 나체 상태로 제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고 또 손이 아닌 입으로 애무하며 성관계를 하도록 만든다.” ... 중략 ... 또 한씨는 “하드코어 셉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기본으로 69체위까지 허락해야 하는데 삼입만 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제 실제 섹스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가 싶기도 했다. 물론 콘돔을 손님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고 뒤처리를 업소측에서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게 불안하기는 하지만...”이라고 전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50>

- 경남일보 2008년 4월 24일자 6면 『80代 노모 살인범은 아들』

보도내용

「... 고성경찰서는 박모(68·무직) 씨를 긴급 체

포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3범인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고성군 ○○면 ○○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 이모 씨(87)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1>

• 부산일보 2008년 4월 22일자 8면 『경마장은 비리 북마전』

보도내용

「…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보다 부상 정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경마기수 김모(39) 씨와 병원 직원 오모(37)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교사 박모(44) 씨와 손해사정사 정모(40) 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중략 … 동부화재 등 8개의 보험에 가입했던 ○○○○공원 소속 기수 이모(34) 씨의 경우 2002년 9월 훈련 중 말에서 떨어져 엉덩이뼈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병원 측의 재수술 권유에도 이를 거부해 입원일수를 늘려 200일씩 2곳의 병원에 모두 400일간 입원하며 8천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정수급했다. … 중략 … 이들의 비리 행각은 ○○○○○○공원 기수 김씨가 지난 2006년 5월 발목 부상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 S병원에 허위 입원 중 보험금을 타내오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꼬투리가 잡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기수로 근무하고 있는 경마공원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2>

• 제주일보 2008년 4월 23일자 5면 『보험금 사기 경마장 기수 등 무더기 적발』

보도내용

「… 부산중부경찰서는 22일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경마공원 소속 장모씨(30)와 김모씨(24) 등 경마기수 11명을 포함해 ○○, ○○, ○○경마공원의 경마 기수와 마필조련사 6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기수로 근무하고 있는 경마공원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3, 54>

• 연합뉴스 2008년 4월 1일자 사회면 『일산 초등

생 납치미수 용의자 “자수하려 했었다”』
• 데일리안 2008년 4월 1일자 사회면 『일산 초등
생 납치미수 용의자, 사우나서 목욕하다 체포』

보도내용

「...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
게 서울 강남구 ○○동의 한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지
하철 수서역 일대에 형사들을 급파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었으며 형사 3명이 사우나 직원에게 사
건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의 사진을 보여주며 “현행범이 있는지 확인해달
라”고 요청했다. 이 사진을 본 사우나 직원 정모
(○○) 씨는 “사진이 워낙 흐리게 나와 정확하지
는 않지만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며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 확인한 뒤 “탈의실 옆
흡연실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사진에 나오는 용
의자와 비슷하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곧바
로 안으로 들어가 흡연실에서 옷을 벗은 채 담배
를 피던 용의자 이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
다. ...」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제보자의 성과 나이, 제보내용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하였으
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
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
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5〉

• 제주타임스 2008년 4월 1일자 4면 『40대 마약 피
의자 구속』

보도내용

「... 강씨는 지난 달 초순 대구에서 필로폰 약 ○g
을 현금 ○○○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같은 달 제
주시내에서 필로폰 약 ○○○g을 ○○에 희석시켜
주사해 투약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투약
또는 다른 사람에게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
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
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
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6, 57〉

• 충북일보 2008년 4월 7일자 2면 『영동 ○○사 주
지 음독 자살』
• 뉴시스 2008년 4월 6일자 사회면 『영동 ○○사
주지 농약 마시고 숨겨』

보도내용

「5일 오전 9시30분께 영동군 ○○리 ○○사에서
주지스님 김모(59)씨가 농약을 마신 채 쓰러져 있
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6
일 새벽 0시30분께 숨졌다. 스님을 처음 발견한 최
모(57·여)씨는 “‘동생이 제초제를 마셨다는 연락
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안방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생존 시 주지로 있던 절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

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8~70〉

- 경향신문 2008년 4월 5일자 8면 『성칼럼 연재 유명 여의사 우울증 앓다 집에서 자살』
- 문화일보 2008년 4월 4일자 17면 『성칼럼으로 유명한 여의사 자살』
- 스포츠서울 2008년 4월 5일자 23면 『성 칼럼 유명 여의사... 숨져』
- 일요시사 2008년 4월 17일자 제639호 45면 『‘아한 칼럼’ 유명 여의사 자살』
- 일요서울 2008년 4월 17일자 제729호 31면 『‘명기’ 꿈꾸다 ‘짜사랑’에 괴로워했다』
- 뉴스웨이 2008년 4월 4일자 사건/사고면 『‘성(性)’칼럼 과감히 다룬 유명 여의사 자살』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4월 4일자 연예면 『충격, 과감한 성 칼럼으로 유명한 여의사 자살』
- 데일리선 2008년 4월 16일자 사회면 『‘40대 미모의 여의사’ 자살 미스터리』
- 데일리안 2008년 4월 4일자 정치면 『‘명기 꿈꾸는...’ 여의사, 죽음을 꿈꾸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무엇’이 성 전문 여의사를 자살로 몰고 갔나?』
- 이뉴스투데이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성칼럼 니스트 민○○ 원장 자살 왜?』
- CNBNEWS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성 칼럼’ 여의사 자살, 미스터리?』
- 프리즌뉴스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40대 미혼 여의사 돌연 자살, ‘○○○○’ 투여... 애정문제로 추정』

보도내용

「... 발견 당시 주변에는 주사기와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는 ○○○○ 1병이 놓여 있었고, 손목

에는 수차례 주사를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및 도구의 명칭 등을 나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72, 73〉

- 일요서울 2008년 5월 1일자 제730호 18~19면 『충격!르포 북창동식 립살롱 영업 상무와 아가씨 솔직 대담』
- 데일리선 2008년 4월 22일자 사회면 『전투가 북창동을 특별하게 만든다』

보도내용

「... 뿐만 아니라 성기의 외형 자체가 때로 문제가 될 때도 있다고 한다. 지나치게 굵은 경우는 마치 오징어를 씹고 난 다음에 턱이 얼얼해지듯이 입 전체의 감각이 다소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마 찬가지의 얼얼함을 느낀다고 한다.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다. 길면 긴만큼 목구멍에 깊숙하게 들어가 기 때문에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불상사’ 까지 생긴다는 것. ... 중략 ... 일명 ‘인테리어’를 한 성형수술 성기를 가진 남성들을 대하는 것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혹시나 상처가 날까 조바심도 나고 툭툭 걸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의 그곳에는 좋은지 몰라도 오를 때는 별로 좋지 않다.” ...」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74〉

• 경기신문 2008년 5월 22일자 8면 『반말 한다고 청원경찰 폭행 농협중앙회 ○○본부 과장 입건』

보도내용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이모(31)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6. 16.

〈시정권고 2008자심75~77〉

- 거제신문 2008년 5월 8일자 제806호 3면 『필로폰 투약자 알선책 경찰에 달미』
- 거제중앙신문 2008년 5월 8일자 제318호 7면 『필로폰 투약·판매 40대 검거』
- 새거제 2008년 5월 8일자 제404호 7면 『필로폰 투약자·판매상 알선 40대 검거』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3

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모 호텔에서 현금 ○○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g을 1회용 주사기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6. 16.

〈시정권고 2008자심78〉

• 브레이크뉴스 2008년 5월 23일자 사회면 『“영구장애 아들 치료비 못내, 집 가압류!”』

보도내용

『“영구장애 아들 치료비 못내, 집 가압류!”』 제하의 보도사진

이 유

위 사진의 보도가 사실 전달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여주고 있는 참혹한 모습은 독자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6. 16.

〈시정권고 2008자심79〉

• 경기일보 2008년 6월 6일자 6면 『납치 위기서 빛

난 ‘아동 안전지킴이 집’ 위력』

보도내용

「... 평택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평택시 ○○동 ○○초교 앞에서 사촌관계에 있는 초등생 여자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삼촌을 사칭하며 납치하려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미수)로 차모씨(28)를 붙잡아 5일 구속영장을 청구.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내가 삼촌이다. 나와 같이 가자”며 100m 가량을 따라오는 차씨를 피해 아동 안전지킴이 집(○○문구)으로 피신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지킴이집 업주 오모 씨(54)의 즉각적인 신고로 차씨를 붙잡는데 성공。」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미성년자 약취 유인미수 사건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문구점의 위치 및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0>

• 부산일보 2008년 6월 11일자 10면 『부산○○청과(주) 대표 사전 영장』

보도내용

「허위물량 상장 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 편취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본보 4월 3일자 8면·12일자 4면 보도) 부산 해운대구 ○○농산물○ 시장 부산○○청과(주) 대표 주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청과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와 당직비 등을 부풀리고 생산지 출하주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등을 과다계상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주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1>

• 중부일보 2008년 6월 16일자 18면 『휴가나온 군인 취객지갑 훔쳐』

보도내용

「... 수원 서부경찰서는 15일 제○○전투비행단 ○○○○대 조모(19) ○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공범 이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2〉

• 일간아침신문 2008년 6월 23일자 5면 『동료 선원 망치로 때린 40대 긴급체포』

보도내용

「22일 8시 40분경 신안군 OO면 OO도 남서 13km 해상에서 조업을 준비중이던 10톤급 자망어선 OO호(승선원 5명)에서 같이 타고 있던 선원끼리 싸우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 중략 ... 해경은 망치로 김씨를 때린 OO호 동료 선원 박모(49·목포시 OO동) 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같은 동료 선원들과 선장인 임모(52·목포시 O동)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원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3~88〉

- 경남매일 2008년 6월 12일자 6면 『생계위해 선박 기름 훔쳐 통영서 선원 3명 검거』
- 거제중앙신문 2008년 6월 12일자 제323호 7면 『통영해경, 유류 절도사범 검거』
- 새거제 2008년 6월 12일자 제409호 7면 『선주 몰래 유류 훔친 선원 검거』
- 고성인터넷뉴스 2008년 6월 11일자 사회면 『유류 절도사범 검거』
- 모닝뉴스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유가급등, 선주 몰래 유류훔친 선원 검거』

• 통영뉴스발신지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기관장이 어선 기름 빼돌리다 ‘덜미’』

보도내용

「고유가 현상으로 영세어민들의 출어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신이 근무하는 선박의 기름을 훔친 선원 신모(51)씨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어획물운반선 제OOO호(49t·OO선적)를 지난 9일 오후 9시경 통영에서 거제지역으로 이동시켜 기관실에 보관중인 면세 경유 10드럼(2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기관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9~94〉

- 세계일보 2008년 6월 24일자 10면 『나사 풀린 군·경』
- 시민일보 2008년 6월 24일자 18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 전국매일 2008년 6월 24일자 7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 중부일보 2008년 6월 24일자 18면 『경찰이 음주 운전 치사 뺑소니』
- 쿠키뉴스 2008년 6월 23일자 사회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 연합뉴스 2008년 6월 23일자 사회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보도내용

「...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등)로 이 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김모(28) 순경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중략 ... 김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였으며 지난달 9일 순경에 임용된 뒤 OO지구대로 같은 달 20일 발령받아 순경 시보기간(임용 후 1년)에 사고를 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직업, 근무처 및 발령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95, 96〉

- 뉴스웨이 2008년 6월 21일자 사회면 『‘생활고’ 고심한 부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2008년 6월 20일자 사회면 『영암서 ‘사료값 폭등’ 고민 부부 숨진채 발견』

보도내용

「...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오전5시40분경 전남 영암군 OO면 OO리 김모(62) 씨의 집에서 김씨의 부인 정모(61)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 중략 ... 김씨 부부는 집에서 농약을 먹고 김씨는 집 앞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으며, 김 씨의 부인 정씨는 가족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 OO대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 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97~119〉

- 국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8면 『범인 잡다 얻은 지병 비관 ‘의협경찰’ 자살』
- 동아일보 2008년 7월 28일자 22면 『어느 열혈 경찰관의 죽음』
- 경기도민일보 2008년 7월 29일자 15면 『의협심 강한 경사 뇌경색 비관』
- 경기매일 2008년 7월 28일자 14면 『경찰, 범인 잡다 얻은 지병 비관해 자살』
- 경기신문 2008년 7월 28일자 12면 『‘의협경찰’ 먼 곳으로...』
- 경인매일 2008년 7월 28일자 15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경찰』
- 기호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8면 『절도범 검거 중 부상 후유증 힘겨운 생활』
- 내외일보 2008년 7월 28일자 7면 『40대 경찰 권총 자살』
- 서울일보 2008년 7월 29일자 19면 『의욕만큼 안 되니까』
- 수도권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5면 『경찰관 파출소서 권총 자살』
- 시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8면 『인천 40대 경찰 파출소서 권총 자살』
- 인천신문 2008년 7월 28일자 4면 『‘근무 중 부상’ 경찰 후유증 비관 자살』
- 인천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9면 『신변 비관 경찰관 근무 중 권총 자살』
- 일간투데이 2008년 7월 28일자 7면 『경찰, 파출소서 권총 자살』
- 제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2면 『경찰관 권총 자살』

- 뉴시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40대 경찰 파출소 안에서 권총 자살』
- 연합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의협심 경찰’ 범인잡다 얻은 지병 비판 자살』
- 인터넷경기매일 2008년 7월 28일자 사회면 『경찰, 범인잡다 얻은 지병 비판해 자살』
- 노컷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의협심 경찰’ 범인 잡다 얻은 지병 비판 자살』
- 뉴스웨이21 2008년 7월 28일자 사건/사고면 『주말·휴일 전국 사건사고 잇따라』
- 인천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병비관 경찰관, 파출소 내에서 권총자살』
- 쿠키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휴무 중 강도 잡은 경찰, 검거 과정서 얻은 지병 비판 권총 자살』
- 한국푸른섬터신문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병비관 자살 경찰관 발생』

보도내용

「휴무 중에도 흥기에 찢리면서까지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아 화제가 됐던 경찰이 근무 중 얻은 지병을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5시 58분쯤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서던 A경사(45)가 권총으로 자신을 쏘아 숨겨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 중략 …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당번이었던 A경사는 오전 4~7시 파출소내 근무 도중 3.8구경 권총을 이용,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경사는 2002년 8월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에 끼인 채 500m를 끌려간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최근까지도 매월 1차례 경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뇌경색 약물을 복용했다.」

이 유

위 기사가 비록 자살자의 자살원인을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에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얻고자 하는 보도라고 할지라도 자살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직위 등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0〉

- 경주조은뉴스 2008년 7월 16일자 사회면 『자살 기도자 귀가 길 경찰이 발견 소중한 생명 되찾아…』

보도내용

「경주경찰서 ○○지구대(경사 서○○)는 08. 07. 12. 22:00경 경주시 ○동 ○○○번지 김○○(남, 61세)가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통을 비판해오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유서 4장을 남겨놓고 집을 나간 자살기도자를 발견 후 동국대 병원응급실에 후송 귀중한 인명을 구조했다. … 중략 … 자살기도자 김○○은 7월 12일경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간 후 선친묘소가 있는 ○○읍 ○○리 야산에 은둔하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약 20정, ○○○ 30정, ○약1봉지를 그곳에서 먹고도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재차 ○○읍 ○○리 소재 ○○못 주변으로 이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2차로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자살에 실패를 하자 08. 07. 14. 09:20경 경주시 ○동 소재 ○○시장 내에 있는 농약사에서 제초제를 구입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1, 122〉

- 조선일보 2008년 7월 28일자 A10면 『필리핀서 한국인 여성 3명 살해당해』
- 경향신문 2008년 7월 28일자 10면 『필리핀 한인 일가족 3명 피살』

보도내용

「... 필리핀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올롱가포시 ○○○ 마을에 있는 한국인 장○○ (여·54) 씨의 집에 27일 새벽 강도가 침입해 장 씨와 장 씨의 딸, 그리고 10세짜리 손녀 등 3명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AP통신이 현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중략 ... 경찰은 장 씨의 딸과 손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특정강력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원 및 거주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3〉

- 천안신문 2008년 6월 30일자 17면 『수면제 먹여

강간한 30대 쇠고랑』

보도내용

「...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손모(39) 씨는 ○○○관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로 평소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 박모(25) 씨를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강간을 계획, 수면제와 드링크제를 미리 준비한 다음 ○○읍 소재 D여관에서 피해자 모르게 먹인 뒤,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가 있다는 것. ...」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4~126〉

- 전국매일 2008년 7월 4일자 6면 『술 마신다고 꾸짖어서...』
- 뉴시스 2008년 7월 3일자 사회면 『어머니 꾸지람에 집 불태운 40대 입건』
- 연합뉴스 2008년 7월 3일자 사회면 『방화로 90대 노모 다치게한 아들 검거』

보도내용

「강원 속초경찰서는 3일 자신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노모가 꾸지람을 하자 화김에 불을 질러 노모를 다치게 한 혐의(건조물 방화치상)로 김모 씨

(42)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께 양양군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을 어머니 이모(95)가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느냐”며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화김에 불을 질러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7〉

• 고향신문 2008년 8월 14일자 7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대마) 피의자 검거』

보도내용

「영덕경찰서(서장 이○○)는 08' 4월부터 8월 12일 10: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면 ○리 ○○-1번지 소재 피의자 소유 약 6㎡ 크기의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마 240포기를 재배한 피의자 P씨(남, 70세, 영덕군 ○○면 거주)를 검거하여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성의 영문 이니셜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의 주소를 상세하게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8〉

• 중부일보 2008년 8월 9일자 5면 『치한 퇴치해 여대생 구조』

보도내용

「… 과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18) 양이 그 주인공. 이 양은 지난달 26일 새벽 귀가하던 중 ○○동 ○○산 등산로 인근 골다리에 서 대학생 김모(28) 양이 괴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 중략 … 이양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공황상태에 빠진 김양을 안정시켰다. …」

이 유

위 기사는 보복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 신고자의 성명·나이·소속 학교·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9〉

• 동양일보 2008년 7월 15일자 3면 『○○공사 간부 내연녀 방화』

보도내용

「…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화김에 내연남이 사

는 관사에 불을 지른 이모 씨(44·여)에 대해 현
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5분께 청주시
○○구 ○○동 모 아파트 15층 한국○○공사 ○○지
사 권모 씨(56)의 숙소에서 권씨와 말다툼을 벌이
다 1회용ライター로 안방침대에 불을 질러 집안 내
부 82.5㎡와 옆집 등을 태워 5000만 원 상당(소방
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방화 사건 피의자와 내연 관계에 있
는 특정인의 근무처 및 거주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 제
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30~134>

- 서울일보 2008년 7월 17일자 19면 『신종 마약 유통 모델·가수 등 적발』
- 아시아일보 2008년 7월 17일자 19면 『신종 마약 ‘○○○○○○’ 유통』
- 일간아침신문 2008년 7월 17일자 4면 『신종 마약 ‘○○○○○○’ 국내 반입』
- 일요시사 2008년 7월 27일자 제654호 41면 『가수도 모델도 얹히고 설켜 ‘해룡해룡’』
- 뉴시스 2008년 7월 16일자 사회면 『부산지검, 신종 마약 ‘○○○○○○’ 유통 연예인 구속』

보도내용

「… 검찰조사 결과 ○○○○○○은 최근 들어 마약
투여자들 사이에 색다른 느낌을 주면서 스피디
(speedy)하다고 알려지면서 엑스터시보다 비싼 가격
인 한 알 당 ○만~○만원에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략 …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
되고 있는 ○○○○○○은 ○○○보다 ○○배의 강력

한 도취감, 각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벤질피페라진)의 명칭, 구
입가격,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
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35, 136>

- 노컷뉴스 2008년 7월 25일자 사회면 『‘작대기, 도리도리’ 인터넷 채팅사이트 통해 마약 유통』
- 제주투데이 2008년 7월 25일자 사회면 『인터넷 채팅사이트 통해 마약 유통』

보도내용

「… 이른바 ○○(○○○ : ○○○○○○○ acid)은
물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대
부분 성범죄에 악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또, 작대기
는 필로폰 주사기, 도리도리는 엑스터시 등을 의미
하는데, 이처럼 각종 마약은 은어를 통해 인터넷 채
팅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거래된다. … 중략 … 결국
박 씨는 마약의 유희를 떨치지 못하고 지난 10일 새
벽 4시쯤, ○○ 해수욕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터넷
에서 구입한 ○○○를 이용해 필로폰 1회분 ○○○g
을 투약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과 관련된 은어 등을 소개하고 마
약 중 하나인 GHB의 사용법 및 필로폰의 1회 사용
량과 사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
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37~140〉

- 경기도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4면 『무료급식단체 총무가 마약판매』
- 경기매일 2008년 7월 28일자 15면 『마약판매 무료급식단체 총무 영장』
- 매일신보 2008년 7월 28일자 4면 『마약 판매한 무료급식단체 총무 구속』
- 뉴시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마약 판매한 무료급식단체 총무 구속』

보도내용

「...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 45분경 OO KTX열차 광장 옆 노상에서 OOOOOO Og을 B씨에게 OOO만원에 판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OOO만원 상당의 OOOOOO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2일 오전 1시경 부산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OOOOOO OOOg을 일회용 주사기에 OO와 함께 넣고 자신의 O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가격, 1회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41~143〉

- 경향신문 2008년 8월 1일자 8면 『‘포토샵 도사’

60대 위조범』

- 한국일보 2008년 8월 1일자 10면 『환갑의 ‘포토샵 달인’ 수표 초정밀 위조』
- 연합뉴스 2008년 7월 31일자 사회면 『‘포토샵 달인’ 60대 홀로 초정밀 수표 위조』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10만원권 수표 296장을 위조해 유통하려 한 김모 씨(60·무직)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했다. ... 중략 ... 김씨는 종이 종류를 연구하면서 수표 제작용지와 비슷한 재질이면서도 값싼 중국산 ‘면종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조선족 동포로부터 A4용지 크기만한 면종이 수백 장을 수입했다. 위조수표 뒷면에 잉크 수정액(화이트)과 지방질 기름을 혼합한 액체로 무궁화 도장을 찍어 얼룩이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수법으로 무궁화 문양의 숨은 그림을 만들었다. ...」

이 유

위 기사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등의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44〉

- 인터넷경기매일 2008년 7월 16일자 스포츠/연예면 『힙합가수·모델, 마약 혐의 구속』

보도내용

「힙합가수·모델, 마약 혐의 구속」제하 기사의 보

도 사진

〈시정권고 2008자심150, 151〉

이 유

위 기사가 마약 밀수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47~149〉

- 남도일보 2008년 9월 18일자 6면 『‘집단구타’ 의경 3명 입건』
- 일간아침신문 2008년 9월 19일자 5면 『‘집단구타’ 의경 3명 입건·경찰관 직위해제』
- 뉴시스 2008년 9월 17일자 사회면 『‘집단구타’ 의경 3명 입건... 경찰관 2명 직위해제』

보도내용

「... 광주경찰청은 17일 광주 ○○경찰서 의경 구타사건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디오 판독 결과 적극 가담자로 확인된 류모(22) ○경 등 고참 의경 3명을 폭력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추후 징계 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무중인 군부대의 명칭, 계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 광주일보 2008년 9월 29일자 7면 『선장 폭행치사 갑판장 영장』
- 연합뉴스 2008년 9월 28일자 사회면 『선장 때려 숨지게 한 갑판장 영장』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은 28일 말다툼 끝에 선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군 선적 9t급 자망어선 ○○호의 갑판장 황모(3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갑판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52, 153〉

- 전국매일 2008년 9월 25일자 7면 『신종마약 ‘○’ 국내 유통 적발』
- 연합뉴스 2008년 9월 24일자 사회면 『부산경찰, 신종마약 ‘○○’ 공급조직 적발』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B씨는 태국에서 유행하는 신종마약인 ‘○○’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량으로 밀반입한 뒤 일당들과 함께 부산과 경남지역의 태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1알에 4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말처럼 힘이 솟는다’는 뜻의 ‘○○’는

히로뽕과 카페인, OOO을 섞어 알약 형태로 만든 신종마약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간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마약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반입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의 명칭은 물론 마약 1알당 가격, 마약의 성분 및 투약의 용이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54~184〉

- 경향신문 2008년 8월 29일자 8면 『‘긴급출동...’ 20대 방송작가 방송국 옥상서 의문의 투신』
- 내일신문 2008년 8월 29일자 20면 『여성 방송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조선일보 2008년 8월 29일자 A12면 『야근하던 방송보조작가 투신 자살』
- 매일경제 2008년 8월 29일자 A10면 『SBS 여성 작가 투신』
- 스포츠서울 2008년 8월 29일자 27면 『‘긴급출동~’ 방송 작가 SBS 사옥서 투신자살』
- 스포츠조선 2008년 8월 29일자 23면 『SBS 보조작가 투신 자살』
- 스포츠칸 2008년 8월 29일자 23면 『SBS 방송작가 투신자살』
- 수도권일보 2008년 8월 29일자 15면 『SBS 작가 투신 자살』
- 시대일보 2008년 8월 29일자 19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아시아투데이 2008년 8월 29일자 11면 『SBS 여성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일간투데이 2008년 8월 29일자 7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중도일보 2008년 8월 29일자 10면 『‘긴급출동 SOS24’ 작가, SBS 사옥서 투신자살』
- 뉴시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연합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여성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고뉴스 2008년 8월 29일자 사회면 『SBS 보조작가,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자살』
- 노컷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24’ 작가, SBS 사옥에서 투신자살』
- 뉴스엔 2008년 8월 28일자 방송엔면 『SBS 작가 28일 목동 사옥서 투신 사망』
- 뉴스원 2008년 8월 29일자 사회면 『SBS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뉴스웨이21 2008년 8월 28일자 사건/사고면 『‘긴급출동 SOS 24’ 보조작가 SBS 옥상서 자살』
- 뉴스캔 2008년 8월 29일자 연예면 『20대 작가 투신자살!!』
- 더데일리 2008년 8월 28일자 사건/사고면 『SBS 20대 작가, 사옥서 투신 자살』
- 데일리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보조작가 SBS 건물서 투신, 원인에 관심 집중』
- 리뷰스타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보조작가 투신자살』
- 브레이크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24 작가, 야근 중 투신자살』
- 시큐리티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건/사고면 『SBS여성 막내 작가 23층 옥상에서 투신』
- 오에스이엔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작가, SBS 목동 옥상서 투신자살』
- 이뉴스투데이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방송인 성공 꿈꾸던 SBS 여성작가 투신』
- 제주투데이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24’ 작가, SBS사옥에서 투신자살』
- 투데이코리아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보조작가 투신자살 ‘충격’』
- 호남인터넷뉴스 2008년 8월 29일자 종합면 『20대 작가 투신자살!!』

보도내용

「28일 오전 2시3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
옥에서 이 방송국 작가 김모 씨(22·여)가 투신해
숨졌다. … 중략 … 김씨는 SBS 프로그램 ‘○○
○○○○○○」의 작가로 전달 밤 사무실에 남아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작가로 일하던 담당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85>

• 경북매일신문 2008년 9월 10일자 5면 『학교폭
력·성적비관 청소년들 잇단 자살』

보도내용

「… ○○○중 3학년 ○모(16) 양은 지난달 28일
학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조퇴를 한 후 자신의 집
에서 과수용 살충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
찰에 따르면 정양은 자신의 메모장에 ‘부모님께
미안하다, 학교와 친구들에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
고 과수용 살충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학생이던 학교 및 학년 등을 구체
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
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86~190>

- 글로벌타임스 2008년 9월 26일자 1면 『경찰관 신
병비관 권총자살』
- 신아일보 2008년 9월 26일자 5면 『근무 중 경찰
관 신병비관 권총자살』
- 아시아일보 2008년 9월 26일자 18면 『신병비관
경찰, 권총자살』
-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사회면 『경찰관 신병
비관 권총자살』
- 더데일리 2008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경찰
관 신병비관, 검문소에서 권총자살』

보도내용

「…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7분께 서울 종로구 ○○동 ○○○검문소 2층
상황실에서 이모 경위(50)가 3.8구경 권총으로 왼
쪽 관자놀이를 쏘 자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등을 구체적으
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
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법 등을 밝혀 독자들로 하
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91>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9월 9일자 스포츠연
예면 『故안재환, 日 카와타 아나운서 자살 방식과
동일』

보도내용

「… 당시 일본 경찰은 카와다가 운전석에서 상체를

조수석으로 둔 채 옆드려 있었고 뒷 좌석에는 연탄 난로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탄가스 질식사로 인한 자살 방식은 일본 내에서 죽은 모습이 자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는 이미 많은 자살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안재환 역시 카니발 차량에 연탄 화덕과 2장의 연탄이 발견 됐다. ...」

이 유

유명인 자살의 경우, 이를 접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여타 다른 기사들과 달리 그가 취했던 자살 방법을 '죽은 모습이 자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92~195>

- 대전일보 2008년 8월 27일자 6면 『일가족이 수십억대 마약밀수』
- 서울일보 2008년 8월 27일자 18면 『필로폰 2만 4600명분 압수』
- 뉴시스 2008년 8월 26일자 사회면 『필로폰 수십억대 밀반입 일가족, 조폭 무더기 탈미』
- 특급뉴스 2008년 8월 26일자 사회면 『공주서, 필로폰 수십억대 밀반입 일당 검거』

보도내용

「...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먹지와 은박지로 싼 뒤 일명 '구리스 오일'을 바르고 납으로 된 양수기 모터 안에 넣어 반입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 밀수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96~229, 241~249, 282>

- 경향신문 2008년 9월 19일자 10면 『항문 괄약근 힘줘 '고혈압' 모델 ○○○ 軍입대 기피』
- 중앙일보 2008년 9월 19일자 12면 『병역 기피 ○○○·○○○ 기소』
- 스포츠칸 2008년 9월 19일자 23면 『'괄약근 조작' 軍기피 ○○○ 기소』
- 아시아일보 2008년 9월 19일자 17면 『검찰, '군입영 기피' ○○○·○○○ 불구속 기소』
- 우리일보 2008년 9월 19일자 7면 『'괄약근 조절' 현역 입대 기피 ○○○ 등 3명 기소』
- 뉴시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檢, '일시적 혈압 상승 이용' 입영 기피 ○○○·○○○ 기소』
- 연합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괄약근 조절' 현역 입대 기피 ○○○ 기소』
- 고뉴스 2008년 9월 18일자 방송/연예면 『'병역기피' ○○○, 비난 봇물... '괄약케이 별명까지』
- 네이션코리아 2008년 9월 18일자 사건사고면 『병역법 위반 ○○○-○○○ 등 3명, 불구속 기소』
- 노컷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모텔 ○○○ 등 병역기피 혐의 기소』
- 뉴데일리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똥꼬'에 힘줘 병역기피한 ○○○와 ○○○』
- 뉴스보이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병역비리 ○○○' 덕에 옛 연인 손○○은 '호감' 반전』
- 뉴스엔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허폐 ○○○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뉴스웨이21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종합면 『손○○ 옛 연인 ○○○ 불구속 기소』
- 더데일리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일반면 『○○○, '병역 비리' 혐의 불구속 기소』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연예인 ○○○·○○○ 등 브로커 고용 병역비리 혐의 불구속 기소』

- 데일리안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검찰 ‘연예인 병역비리’로 ‘○○○’ 등 3명 기소』
- 베타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뉴스면 『‘항문에 힘주면 병역면제?’ ○○○는 불구속인데 의사는?』
- 보안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 등 연예인 3명, 병역비리 혐의 불구속 기소』
- 부채질닷컴 2008년 9월 19일자 사회면 『연예인 병역비리, ○○○ ○○○ “괄약근 조여 혈압 높여 위장?!”』
- 브레이크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병역비리로 기소된 ○○○-○○○, 네티즌들 “실망스럽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9월 18일자 스포츠연예면 『○○○ 등 연예인 병역비리에 ‘괄약근’이 왜 나와?』
- 씨앤비뉴스 2008년 9월 19일자 스포츠연예면 『○○○, 커피먹고 괄약근 힘줘 군대 면제』
- 아시아경제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연예인 병역비리 또 발생, 도덕적 해이 언제까지?』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일반면 『연예인 병역비리, ○○○ ○○○ 등 “괄약근에 힘 주었지만...”』
- 이뉴스투데이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스포츠면 『병역법 위반 ○○○ 등 연예인 3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괄약근 조절, 현역 기피’』
- 이슈제주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제주출신 뮤직비디오 감독 군 입대 기피로 기소』
- 조이뉴스24 2008년 9월 18일자 문화연예면 『○○○,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괄약근’ 조절 고혈압 판정받아』
- 쿠키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검찰, 병역비리 ○○○ 등 3명 기소』
- 프런티어타임즈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항문죄기 탈인(?)’... ○○○, 병역기피 피소』
- 프리즌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 괄약근 조절로 병역기피.. 결국 기소』
- 한강타임즈 2008년 9월 19일자 연예면 『검찰, 병

역 비리 ‘○○○’ 등 3명 기소』

- 헬스코리아뉴스 2008년 9월 18일자 방송/연예면 『연예인 병역비리, ○○○·○○○ 등 건강상태위장 ‘불구속 기소’』
- 남도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13면 『법원, ‘병역 기피’ ○○○ 집행유예 2년』
- 시민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9면 『‘현역기피’ ○○○, 집유 2년 선고』
- 전주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11면 『○○○?○○○ ‘병역기피’ 집유 2년 선고』
- 충남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16면 『법원,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 호남신문 2008년 10월 30일자 13면 『법원, ‘병역기피’ ○○○ 등 집행유예 2년』
- 뉴시스 2008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법원,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 더데일리 2008년 10월 29일자 연예일반면 『法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 브레이크뉴스 2008년 10월 29일자 연예일반면 『군입대 기피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비즈플레이스 2008년 10월 29일자 연예면 『손○○ 전 남친 ○○○ 병역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동아일보 2008년 11월 12일자 B11면 『병역법 위반 ‘○○○-○○○’ 어제 군입대』

보도내용

「... 1~3급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이들은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병역 기피를 보도하면서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아내는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

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230〉

• 시사포커스 2008년 9월 19일자 사회면 『잠입취재 천태만상 변태클럽 이야기』

보도내용

「... “제일 황당한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스캇’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여자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즐기거나 혹은 그 대변을 가지고 페티시를 즐기는 분야죠.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직접 경험한 도우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업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스캇을 해달라고 했죠. 이쪽 분야의 아가씨들은 별의 별 남자들을 다 만나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스캇 마니아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용기를 내서 대변을 봤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걸... 그 도우미는 기겁을 했죠. 그런데 가지고 온 비닐 등에 대변을 받아가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업소에서는 모르게 손님과 아가씨의 목인 아래 행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 행위 등을 보도하는 등 독자로 하여금 불쾌감 및 수치심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231, 232〉

• 브레이크뉴스 2008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내연녀 무시에 쌓여 있던 분노 폭발 “낮으로 그녀 입 짹~ 찢어”』

• 주간현대 2008년 9월 21일자 제579호 34~35면 『내연녀 무시에 쌓여 있던 분노 폭발 “낮으로 그녀 입 짹~ 찢어”』

보도내용

「... 쇠파이프로 여성을 가격해 기절시킨 뒤 낮을 이용해 입과 복부, 등을 난자한 것.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는 고아무개(55)는 지난해 자신이 즐겨 찾던 카바레의 여종업원 장아무개(45)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 중략 ... 겁에 질린 장씨의 모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고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고씨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장씨는 이내 기절했다. 고씨의 엽기 살인행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동안 장씨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욕설과 무시에 대해 복수라도 하려는 듯 고씨는 낮을 집어 들고 장씨의 입을 양 옆으로 찢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장씨의 배와 등을 낮을 이용해 찢고 찌르기를 수차례, 장씨는 곧 숨을 거뒀다. ...」

이 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독자로 하여금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233~236〉

• 내외일보 2008년 10월 8일자 7면 『목포해경, 음

주 운항 선장 적발』

- 일간아침신문 2008년 10월 8일자 5면 『술 마신 채 선박 운항 선장 적발』
- 호남신문 2008년 10월 8일자 6면 『목포해경, 술 마신 채 선박 운항 선장 검거』
- 뉴시스 2008년 10월 7일자 사회면 『목포해경, 술 마신 채 선박 운항 선장 적발』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항하던 9급 전남 목포선적 연안자망 제200호 선장 김모 씨 (41·전남 목포시 00동)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심237>

- 거창군민신문 2008년 10월 13일자 제124호 6면 『암체족의 주차 방법, 이래서야…』

보도내용

「암체족의 주차 방법, 이래서야…」 제하의 보도 사진

이 유

위 보도사진은 비록 해당 기사의 취지가 계도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차된 차량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차량의 번호판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보도한 것은 차량 소유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심238, 239>

- 노컷뉴스 2008년 10월 1일자 사회면 『입대 두 달 된 의경, 경찰서 건물서 투신?사망』
- 제주투데이 2008년 10월 1일자 사회면 『입대 두 달 된 의경, 경찰서 건물서 투신자살 왜?』

보도내용

「입대한 지 두 달 된 의경이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쯤 대구 00경찰서 방법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정모(20) 이경이 경찰서 건물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 중략 … 경찰은 일단 정 이경이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동료 의경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를 캐묻는 등 정확한 투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숨진 정 의경은 지난 8월 입대해 지난달 11일 대구 00경찰서 방법순찰대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전입시기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삼240〉

- 중도일보 2008년 10월 24일자 5면 『전 연기군수 아들 자살』

보도내용

「23일 낮 12시20분께 청원군 ○○면 고가 다리 아래 공터에 주차돼 있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이모(39) 씨가 목을 매 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이씨는 이○○ 전 ○○군수의 셋째 아들로 조치원에서 ○○면 집을 운영해 왔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전직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삼250~276〉

- 스포츠서울 2008년 11월 27일자 27면 『간통 혐의 ○○○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스포츠조선 2008년 11월 27일자 23면 『“박○ 외도는 정당한가” ○○○ 눈물 항변』
- 스포츠칸 2008년 11월 27일자 2면 『“박○, 100명 넘는 여성들과 성 관계”』
- 일간스포츠 2008년 11월 27일자 23면 『“제가 박○보다 죄질이 무겁습니까”』
- 내외일보 2008년 11월 28일자 15면 『검찰, ‘간통’ ○○○ 1년 6월 구형』
- 매일신보 2008년 11월 28일자 15면 『○○○ “이혼 할 수 있어 홀가분”』
- 새전북신문 2008년 11월 27일자 13면 『○○○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 인천일보(경기판) 2008년 11월 27일자 19면 『○

○○씨 징역 1년 6월 구형』

- 호남신문 2008년 11월 27일자 7면 『검찰, ‘간통’

○○○ 1년 6월 구형』

- 경기조은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간통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니홈피 통해 박○과 이혼 후련하다 심정고백』

- 고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방송/연예면 『○○○ 심정고백, ‘네티즌 응원 이어져’』

- 뉴데일리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간통남 “○○○ 문란한 여자 아니다” 주장』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면 『○○○ 심경 밝힌 미니홈피 응원글 폭발적』

- 데일리정경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문화면 『텔런트 ○○○, 간통죄로 징역 1년 6월 구형받아』

- 베타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면 『○○○ 구형 ‘징역 1년 6월’… 또 핑계? “아직도 반성 덜했나”』

- 부채질닷컴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진술, “박○ 100명 넘는 여성들과 문란한 성생활 했다!”』제목의 보도와 11월 27일자 동면 『○○○ 심경 박○ 100명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 ‘충격!’』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11월 26일자 스포츠 연예면 『○○○ 출두, “박○ 100명 넘는 여성과 문란한 생활했다” 진술』

- 시사플러스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간통 혐의 ○○○, ‘박○은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 했다’』

- 시큐리티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사건/사고면 『○○○ 간통 징역, “박○은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 씨앤비뉴스 2008년 11월 26일자 스포츠연예면 『검찰, ‘간통’ ○○○ 1년 6월 구형』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8년 11월 26일자 문화·연예면 『○○○, 정씨와 ‘간통’ 아닌 ‘운명’ … “박○ 죄질 더 무거워”』제목의 보도와 11월 27일자 동면 『○○○, 면사포 벗으며 “행복하다”』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8년 11월 26일자 연예일반면 『○○○ 진술 “박○보다 죄질이 무겁다면 감수하겠다”』

- 조이뉴스24 2008년 11월 26일자 연예면 『검찰, ‘간통’ ○○○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프런티어타임스 2008년 11월 26일자 연예면 『“관사님, 박○은 100명과도 외도했는데 왜 나만...”』
- 투데이코리아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면 『○○○ 진술 “박○ 유흥생활 너무 문란했다”』
- 한국재경신문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일반면 『○○○ 진술 박○ 증거물보다 호소력 떨어지나?』
- 헬스코리아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방송/연예면 『○○○ 심경 “당신에게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행복해”』

보도내용

「... 그러나 “○○은 결혼 생활 11년 동안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수백 명의 여자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만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그에 비해 나와 정씨의 짝꿍인 3개월간의 만남이 더 많은 지탄을 받을 만큼 나쁜 죄질이라면 모든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는 내용의 기사와 보도사진

이 유

위 기사는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텔런트 ○○○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사생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고소인 ○○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연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여 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77〉

- 전주일보 2008년 11월 6일자 5면 『복지시설 대표, 원생 성폭행』

보도내용

「...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김제시 ○○동에 사회복지법인 ‘○○교 ○○의 집 ○○○ ○○’을 설립해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시설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김모(25·여) 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했으며 김모(26·여)씨도 같은 시기에 시설 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왔으나 시설을 벗어나 전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전 생활지인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현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였으므로(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78〉

- 일간아침신문 2008년 11월 18일자 5면 『어업허가증 위조 40대 어민 영장』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불법 조업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채모(42)씨에 대

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씨는 자신의 소유인 8.55t ○○호의 연안복합 허가증을 연안안강망 어업허가증으로 위조, 불법 조업을 통해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79>

• 중도일보 2008년 11월 20일자 5면 『가축 훔치다 주인 찢러』

보도내용

「서천경찰서(서장 김헌기)는 19일 새벽 시간대에 농가를 돌며 개, 염소 등 가축을 훔치다 이를 알아차린 주인을 흉기로 찢르고 달아난 나모(31)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13일 서천군 ○○면 ○○리 이모(42)씨 집에 몰래 들어가 개를 훔치다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도축용 칼로 이씨를 찢른 후 도주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80, 281>

- 뉴스핌 2008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증권맨 이어 보험사 지점장 자살… 증권가 ‘술렁’』
- 브레이크뉴스 2008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주식시장 패닉… 금융권 직원 자살 도미노?』

보도내용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금융권 직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 중략 …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의 한 야산에서 ○○○○생명 금융프라자 ○○○○점에서 일하던 지점장 유모 씨(42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 중략 … 경찰 측의 차량 조회결과, 차량 소유주가 지난 16일 가출신고를 해둔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유모씨 주변에는 독극물 병이 놓여 있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일하던 직장명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신청심의 시정권고

〈사건번호 2008신심13〉

신청취지

SBS-TV 2008. 7. 27. 「8시뉴스」프로그램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SBS-TV 2008. 7. 27. 「8시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 옹진군 ○○파출소에서 ○○살 박모 경사가 38구경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경사는 지난 2002년 차량 절도범을 쫓다가 차문에 매달린 채 500m를 끌려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 중략 … 경찰은 일단 박 경사가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동기를 신병비관으로 단정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자살자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과 함께 신병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을 모두 담고 있어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4〉

신청취지

YTN-TV 2008. 7. 27. 「YTN24」프로그램의 “뇌경색 앓던 경찰관 권총 자살” 제하의 보도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YTN-TV 2008. 7. 27. 「YTN24」프로그램의 “뇌경색 앓던 경찰관 권총 자살” 제하의 방송을 통해 “인천 ○○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살 박모 경사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중략 … 지난 2002년 차량 검문검색 도중

머리를 크게 다친 박경장은 그 뒤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가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범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범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5〉

신청취지

연합뉴스 2008. 7. 27. 「무더운 주말… 익사·자살로 얼룩(전국종합)」제하의 기사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2008. 7. 27. 「무더운 주말… 익사·자살로 얼룩(전국종합)」제하의 기사를 통해 “27일 오전 5시58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이던 A(45) 경사가 권총으로 자신을 쏘 숨진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사가 2002년 차량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최근에도 뇌경색 약을 복용하는 등 지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가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에서 자살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살자의 나이, 근무하는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6〉

신청취지

조선일보 2008. 7. 28일자 A10면「車절도범 잡다

머리 다친 경찰관, 결국... 뇌경색 후유증 비판 자살」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2008. 7. 28.자 A10면「車절도범 잡다 머리 다친 경찰관, 결국... 뇌경색 후유증 비판 자살」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절도범을 잡으려다 머리를 다친 경찰관이 뇌경색 후유증을 비판하다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파출소에서 박모(45) 경사가 38구경 권총 한 발을 자신의 오른쪽 머리에 쏘고 숨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 (중략)... 박경사는 2002년 중부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차량 절도범이 검문 중인 그를 차에 매단 채 500m를 달려 달아나는 바람에 차에 끼여 끌려가다가 땅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뇌진탕에 따른 뇌경색 후유증이 생겨 지금까지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박 경사의 가족과 동료들은 박 경사가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들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가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7〉

신청취지

한국일보 2008. 7. 28.자 10면 「병마는 '체포' 못하고... 범인 잡다 부상 경찰관 뇌경색에 시달리다 자살」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2008. 7. 28.자 10면 「병마는 '체포' 못하고... 범인 잡다 부상 경찰관 뇌경색에 시달리다 자살」제하의 기사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5시58분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박모(45) 경사가 38구경 권총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발사해 숨겨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박 경사는 2002년 중부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차량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에 매달린 채 500m를 끌려간 뒤 땅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 사고 이후 뇌경색증을 앓아 최근까지 경찰병원에서 매월 1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 (중략) ... 동료들과 유족들은 박경사가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과 최근 심해진 뇌경색 증세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경사가 지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를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22〉

신청취지

일간스포츠 2008. 10. 6.자 12면 「말벌 술에 번데기 튀김 최고 정력제 소문 자자」제하의 기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특정 술에 대해 '최고 정력제', '정력을 부르는 묘약'이라고 표현하는 등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보도하였으므로 시정권고 하라.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일간스포츠 2008. 10. 6.자 12면 「말벌 술에 번데기 튀김 최고 정력제 소문 자자」제하의 기사에서 “불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1600배가 넘는 먹이를 끌고 다닌다. 스테미너는 물론 악성종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약술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불개미주를 소개함은 물론, “노봉방주는 말벌로 담근 술로 정력에는 최고라는 소문을 듣고 만난 이모 씨가 ‘말벌은 꿀벌의 550배에 달하는 치명적 맹독을 갖고 있어 말벌집은 예로부터 산삼보다 귀한 영양식품으로 취급돼 왔다. 이 술 한 잔 마시면 너무 세져서 주체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변강쇠 비결을 밝혔다”고 보도하였고, “무후주는 여자의 정력주로 1년에 300개의 알을 낳는 정력의 화신인 메추리로 만든 술로 중국 최초의 여황제인 측천무후가 이 술을 마시고 남자 열 명과 성생활을 즐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독자들에게 건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자사와 연관 있는 케이블 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할 욕심에 분별력을 잃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술들을 '최고 정력제', '정력을 부르는 묘약'이라고 표현하는 등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기사를 작성하여 해당기사를 접한 독자들이 기사에서 언급된 술들을 '최고 정력제'라고 현혹당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해당기사는 피신청인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케이블방송 Q채널에서 방송예정인 내용을 요약 보도하면서 의학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특이한 재료로 담근 술을 '최고 정력주'로 소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지나치게 호평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게재한 바, 해당기사를

접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술을 마시게 되면
왕성한 정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해되도록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해당기사는 안전성 및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술 등을 '최고 정력주', '정력을 부르는 묘
약'이라고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이런
술들에 대한 주의사항 내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 기사를 접한 독자들
로 하여금 여기에 소개된 '정력주'를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독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
지 아니하고, 선정적이면서 과장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되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
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0.

〈사건번호 2008신심25〉

신청취지

조은뉴스(<http://www.egn.kr>) 2008. 11. 20.자 「조
성민 악플러의 입, 재봉틀로 박아버릴 수만 있다
면...」이라는 기사의 제목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선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권고하
라.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조은뉴스(<http://www.egn.kr>) 2008. 11.
20.자 「조성민 악플러의 입, 재봉틀로 박아버릴 수
만 있다면...」제하의 기사에서 「故 최진실의 자살
이후 현행민법에 따라 조성민의 자녀에 대한 친권
이 자동 부활되면서 네티즌들은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수작부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
아내자 조성민은 고인의 재산을 모두 유족들에게
넘겼으며 친아버지로서 본능적 사랑을 다하고 싶
다고 밝혔다. 조씨의 이 같은 심경을 왜곡하지 않
는 따뜻한 배려와 용서를 네티즌에게 주문하면서
아울러 조씨의 부정(父情)을 외면한 고인의 돈에
만 목매달았던 일부 악플러의 자기반성도 함께 주
문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악플로 제2, 제3의 안재
환과 최진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입들을 재봉틀
로 들들 박아버리고 싶은 게 필자의 심정이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가급적 건전하고 순화된 어
휘를 사용해야 할 언론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기사의 제목 등을 작성
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
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
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다.

살피건대, 언론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을 도모할 사회적 책임이 있
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보도는 “악플러의 입, 재
봉틀로 박아버릴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과 “입들
을 재봉틀로 들들 박아버리고 싶다”는 기사 내용
을 게재함으로써 이를 접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
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순화된 언어사용 습관을 확
립하도록 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여과되지 않은 선정적 표현으로 기사제
목 등을 작성한 피신청인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